

“손 의원 덕분에 모처럼 활기...투기 여부는 밝혀지길”

르포 / 목포 대의동 근대문화유산거리 가보니

“투기 의혹이 사실이면 아니든 모처럼 호기를 만났으니 목포 발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20일 오전 방문한 목포시 대의동 일대 근대문화유산거리의 ‘손혜원 특수’를 누리고 있었다. 삼삼오오 거리를 거니는 외지 방문객들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장성장’을 찾아 내부를 들여다보거나 인증사진을 찍었다. ‘장성장’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여관으로, 현재 손 의원의 조카 손모(22)씨가 사들인 뒤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기 전까지 제법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은 출입문이 굳게 닫힌 채 인기척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문 닫힌 창성장 외지인들 북적 카페 유리창 손혜원 응원 메모지 “땅값 올랐지만 여전히 낮아 현지인들 투기 주장 코웃음” 재개발 조합원들 싸늘한 반응



기자회견 하고 있는 손혜원 의원. /연합뉴스

인근에서 농기계수리점을 운영하는 김모(73)씨는 “언론 보도 후 하루에도 10여 명씩 ‘여기가 장성장이 맞나’고 물어보고 있다”며 “거리에 사람이 많은 것은 좋은데 안 좋은 일로 동네가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 곳은 해만 떨어지면 길고양이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버려진 동네였다. 그나마 손 의원이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목포를 알고, 이곳을 아는 사람은 투기라는 말에 코웃음을 친다. 손 의원은 이곳 주민들에겐 고마운 존재”라고 했다.

42)가 운영하고 있는 갤러리 겸 카페 앞 도로도 붐볐다. 광주에서 왔다는 최모(32)씨는 “손 의원이 샀다는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 찾아왔다”며 “일제 식 건물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했다.



20일 오전 목포시 만호동 손혜원 의원의 조카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겸 갤러리를 방문객들이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구가 적힌 노란 메모지도 여러 장 붙어있었다. ‘너희가 아무리 투기라고 해도 우리한테는 투자다. 은인이다’, ‘투기라고 치자. 너네는 투기라도 해줘봤나? 눈길이라도 한 번 쬐봤나’라는 등 손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많았다.

보다 5배 가까이 늘었지만, 거리 곳곳에는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한 뒤 방치된 상가 건물이 제법 보였다. 손 의원 보좌관의 남편이 구매했다고 알려진 옛 동아약국 건물(5·18 민주화운동 목포사적지 15호)도 표석을 통해서만 5·18 사적지임을 알 수 있을 뿐 주변에는 쓰레기만 뒹굴고 있었다.

투기광풍도 느끼긴 힘들었다. 손 의원 특수로 부동산 값이 상승하긴 했지만, 도심 내 땅값이 여전히 낮은 가격이라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인근 부동산중개소 대표 박모(75)씨는 “이 일대가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3.3㎡당 100만원 수준이

었던 땅값이 지금은 그나마 평균 30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며 “목포는 하당·남약 등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원도심이 쇠퇴했는데 손 의원 덕분에 오랜 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손 의원을 지지하는 구도심 주민과는 달리 재개발에 직격탄을 맞은 서산·온금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민들은 손 의원에게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김대식 조합장은 “슈퍼나 약국도 없이 수십년간 불편하게 살아온 주민들이 이제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재개발을 추진했는데, 손 의원과 어울어진 옛 조선내화터가 발목을 잡았다”며 “우리도 손 의원의 근대문화유산거리 개발 논리에는 찬성하지만, 그 사업과 옛 조선내화건물을 연관짓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탈당 의사와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이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손 의원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목포 시민들은 “하루 빨리 사실이 규명돼, (투기 의혹 논란이) 목포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민단체인 목포포럼도 이날 성명을 통해 “모처럼 목포 원도심이 활성화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문제로 역사문화 공간 활성화 사업이 위축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투기에 대한 진위는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하며, 정쟁이나 논쟁을 우선하는 소모적인 행위는 즉시 그쳐달라”고 당부했다. /목포=김용희·정병호 기자 kimyh@

국보·보물과 달리 50년 지난 건축물·유물 대상 지정문화재보다 내부 수리·용도 변경 자유로워

등록문화재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국보나 보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등록문화재 제718호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정부가 2001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했다.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지녔지만, 국가가 문화재로 지정하지 못하는 근대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로 개화기부터 6·25 전쟁 전후 기간에 건설·제작·형성된 건조물 또는 시설물, 문화예술 작품 등 가운데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높은 것이 주요 대상이다. 광주와 전남에는 옛 전남도청 본관, 조선대 본관, 서석초·수창초 본관 건물, 옛 호남은행 목포지점, 옛 여수 정년화관, 구 나주경찰서, 나주 노안성당, 소록도 일부 시설 등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등록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와 크게 다른 점은 보수와 활용이 용이하고, 심지어 철거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국가 지정문화재는 현 상태를 바꾸는 ‘현상변경’을 하려면 지자체장이나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리·정비는 물론 문화재 주변에 의자를 설치하고 나무를 심을 때에도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 사적이니 명승이니 천연기념물이니 하는 ‘지정’ 문화재는 모양을 바꾸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하지만 등록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원형 보존에 노력해야 한다”는 막연한 조항만 있을 뿐, 현상변경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하게 돼 있다.

즉 문화재로 지정되면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세간의 인식과 다르게 등록문화재는 건축주가 자유롭게 보수해 부동산 가치를 올린 뒤 판매할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

재개발 추진 서산·온금지구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집중 매입 의혹이 제기된 이후 언급되고 있는 목포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사업이 주목되고 있다.

서산·온금지구는 이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인 근대역사문화공간과는 직선 거리로 3km 가량 떨어져 있다. 이 지역은 목포항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유달산을 배경으로 조망이 뛰어난 곳이지만, 마을이 형성된 지 오래돼 노후 주택 등이 밀집돼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하당 신도심 개발 등으로 원도심 인구가 줄어들면서 공동화가 심화된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달산의 풍광과 다도해의 전경이 어우러진 친환경 주거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재개발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12년 목포시가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면서 시작했다. 애초 38만8463㎡ 부지



지난 2017년 12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옛 조선내화 부지. /김진수 기자 jeans@

에 3개 지구로 나눠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구역을 제외한 2·3구역은 조합 구성을 못해 준지지역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1구역은 2015년 주민 364명이 참여한 주택조합을 구성하고 재개발사업이 진행됐다. 1지구는 주택조합과 중흥건설 등이

손잡고 20만267㎡에 20층 내외의 1419세대(주상복합 354, 아파트 1013, 연립주택 52)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화재 등록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1구역의 계획면적 중 14%를 차지하는 옛 조선내화 목포공장 터 2만6296㎡ 가운

데 7603㎡가 2017년 12월 근대산업유산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공장 3동, 사무동, 굴뚝 3개, 산업설비물 등이 문화재가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재정비촉진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또, 당초 계획된 재개발사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선내화 측과 토지 매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선내화 공장 터를 제외하고 재개발사업 추진도 검토하고 있지만, 조선내화측이 지난해 8월 추가로 1만8000여㎡도 문화재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재개발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조선내화 터가 문화재로 등록될 경우 재개발사업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손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근대역사도시 목포에는 도시재생예산이 많다. 서산온금지구 모든 가구를 지원할만한 충분한 예산이다. 그 지역을 산토리니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면서 “재개발 구도심은 건들지 말자”고 주장했다. /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 655-6544

062) 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산수오거리지점

돌고개지점